

# 사회 복지

## 3 湖南新聞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정책이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보장구 수리 점검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2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점검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날 서비스를 통해 보장구의 상태 기초점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장구 관리요령에 대해 알려주며 일대일 맞춤서비스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보장구 수리·점검서비스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의뢰한 모든 보장구를 무료로 점검해주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부품비용 등의 일부는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Photo 漫評

#### 설화

'막말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17일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보낸 입장을 통해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는 황교안당대표가 3월 4일 그를 당사무총장에 임명한 지 석달여 만이다. 그는 지난 3일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일어났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결례질을 해"라고 언급하며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달 7일에도 국회에서 회의 도중 당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가 당 사무처의 비판 성명이 나오자 사과한 전력이 있다. 박지원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글=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몸이 아파 사... 한선교



허가 아픈 것아녀 박지원



막말을 그렇게 해냈으니... 시민들

# 산업부-복지부, 돌봄로봇 활성화 포럼

정부·기업·로봇수요자 모두 참여  
"국민 돌봄 부담 감소에 도움 되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17일 돌봄로봇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포럼을 열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포럼을 열고 정부의 돌봄로봇 지원 사업 소개 및 산업부-복지부 협업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돌봄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복지부는 중개 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로봇 산업 발전방안에 따른 돌봄로봇 기술 개발 및 5000대 보급 계획과 렌털·리스 등 금융서비스 도입 계획

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기존 기기로 해결할 수 없는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 개발, 중개 연구, 현장 실증 제도 개선 등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2019~2022년)'을 알린다. 또 산업부와 복지부는 돌봄로봇

사용자의 의견을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돌봄로봇 네트워크 포럼 소그룹 모임'을 운영, 연구자-수요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복지부 간 협력 분야를 수술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로봇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와 돌봄로봇 수요자가 모두 참여했다. 요양병원 및 시설, 근육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관계자 등이다.

산업부-복지부 돌봄로봇 협업 사업을 수행하는 로봇 기업(사이보그랩, 알파로보틱스, 큐라코, 맨엔텔)과 연구소 및 기관(국립재활원, 생산기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학(동의대학교), 돌봄 수요자 등이 참여해 2021~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돌봄로봇 사용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킹 실무 그룹 회의를 열고 전시 부스를 운영, 행사에 참석한 수요자들이 실제 제품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로봇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간호·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민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돌봄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포럼을 계기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이 활성화돼 국민의 돌봄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이번 포럼 이후에도 협력 사업의 공동 연구 발표회 및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과 성과를 계속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일상에 스며드는 주민복지

함평군 신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지역취약계층 40가구를 직접 방문, 밀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날 밀반찬 지원 사업에는 신광면 자원봉사회(회장 노애영)와 함평신광치안센터(센터장 윤현철)가 각각 반찬조리 및 전달에 힘을 보탰다.

##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높인다

복지부, 인천·강원·충북·전북 거점병원 지정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행동문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운영 중인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병원에 이어 올해 신규지정된 병원인 인하대 학교병원, 강원대 학교병원, 충북대 학교병원, 전북대 학교병원 등이다.

2017년 기준 발달장애인은 22만 5601명으로 전체 장애인(254만 5637명)의 8.9% 수준이다. 전체 장애인 수가 연평균 0.2%로 동결수준인데

비해 발달장애는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다.

거점병원에는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를 뒀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필요한 진료부서 간 협진을 용이하게 돕는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행동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응용행동분석(ABA) 등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제공한다.

지난해 9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행동문제 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 서울과 부산 외 다른 지역에도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된 4개 병원은 행동치료 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실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뉴시스



장성군,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서비스 호응

장성군이 관내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광주·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장성군은 지난 15일 광주·전남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연계해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치과진료서비스 순회 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치과진료서비스 순회 진료'는 전남대치과병원 전문 인력 8명으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펼치는 의료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평소 치과병원 방문이 쉽지 않아 치과 진료를 받기 힘든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을 실시하고 스케일링과 충치 치료를 제공했다.

또한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별 치과상담을 통해 개개인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법과 올바른 칫솔질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관리법을 설명했다.

장성군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구강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큰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의료진들이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치과진료서비스 순회 진료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조미숙 장성군 보건소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순회 진료가 구강질환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혜택을 마련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